

한국 최초의 사진기술자 · 화학도였던 ‘김용원’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사진에 관한 역사를 조사해 보면 한국인으로 처음 사진술을 익힌 사람은 김용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사상 첫신문인 한성순보 제15호(1884년 2월 21일)에는 ‘촬영국’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지난 여름 저동에 우후벼슬을 지낸 김용원이 일본인 혼다를 데려다 촬영국을 개설했다. 또 이번 봄에는 마동의 전 주사 지운영이 일본에서 사진을 배우고 돌아와 개설했는데 그 기술이 참으로 정교하다고 한다.” 이것이 국내에 사진관이 생긴 첫기록이다. 국내에서 처음 사진관을 연 사람은 김용원과 지운영임을 알 수가 있다.

신사유람단으로 파견, 사진술 · 화학 · 유리 제조 배워

우리 선조들이 사진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개국 직후부터였다. 1876년 일본과 수교한 직후 몇 차례 수신사들이 일본을 방문했다. 첫 수신사 대표는 김기수였는데, 그 일행이 1876년 6월 9일 도쿄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김용원은 일행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진술을 익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개화된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신들은 일본에 가서 문명개화의 과정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과 1881년 신사유람단이 파견되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진관 주인 김용원은 1881년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학과 양잠술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만하면 한국 과학사의 첫인물의 한 사람이 되는 셈이다. 김용원은 본관이 청풍, 호를 미사라 했고, 1876년 제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갈 때 부사과로서 화원의 직분을 띠고 수행하였다. 그는 1881년에는 경상좌도 수군우후 등의 무관으로 근무했다.

또 그 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파견됐을 때, 원래 기선과 총포

구입을 담당했던 이동인이 실종되자 그가 대신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기선과 무기에 관한 임무를 맡았던 김용원은 신사유람단이 귀국한 뒤에도 일본에 남아서 원래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학과 양잠학을 배웠다. 아주 초보적이지만 그는 조선인 최초의 화학도가 된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80년 즈음 부산에서 그곳에 거류하던 일본인 사진사에게 사진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진에 필요한 화학 지식을 익히고 또 거기 필요한 유리를 만들 궁리까지 했던 것으로 당시 일본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진술, 화학, 유리 제조 등이 김용원에 의해 시작되려 한 셈이다. 김용원이 사진술을 배우려하게 된 이유는 당시 조선에 근무하던 일본 외교관 하나부사 요시타다의 권고 때문이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1871년부터 조선의 일본공사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던 그는 1879년 즈음 김용원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처음부터 김용원은 이렇게 일본과 친해지고 있었다. 조선인으로는 몇 안 되는 문명개화의 일본을 초기에 참관한 인물이어서 근대화하고 있는 일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일본에 갔다가 유학생이 되어 머물렀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시 일본의 선각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미 그는 신사유람단의 한 사람으로 선박 조정, 시계 제작점, 방적 시설, 양잠소 외에 유리 공장 등을 시찰했다. 유리에 대해서는 김용원의 수행원이었던 손봉구 역시 시나가와 유리공장에 들어가 유리 제조 기술을 배웠을 정도였다. 또 1882년 3월 김옥균이 일본에 갔을 때는 변수와 함께 경도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하여, 몇 차례 그들을 만나 시를 지어 나누고 교류한 일도 있다.



1차 한·러 조약 실패 책임 물어 유배당하기도

일본인들은 이미 상당히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서양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협력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흥아회에 초대되어 조선 지식층이 시를 짓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귀는 모임에 김용원 역시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1881년 8월의 모임에서 그는 “仁義를 중히 여기는 아세아 사람들이 지금은 낙후되었지만, 흥아회가 있으니 협력하여 장래에 외국의 모욕을 막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다짐한다”는 글을 보낸 기록도 남아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는 조선 고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난하고 천한 나라가 우리 나라만한 곳이 없다. 백성은 가난하고 나라 재정은 메마르니 당연히 이용후생에 힘써야 한다.” 김용원은 개화를 향한 꿈을 크게 가꾸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때였다. 그가 유학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 일본에 머물지 못하고 귀국한 것이 분명하다. 한성순보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는 1883년 여름에 서울에서 촬영국을 열었으니, 그 전에 이미 귀국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의 실패로 개화파가 몰락하면서 청나라의 위세가 높아지자, 왕실에서는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보려는 기운이 일어났다. 청·일간의 세력 다툼 속에 제3세력으로 러시아를 생각한 것이다. 갑신정변 직후 청·일군대가 주둔하여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고종은 김용원 등을 몰래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해 러시아 관리와 약정을 추진했다. 또 당시 외무 고문을 맡았던 뮐렌도르프도 비밀리에 주일 러시아 공사를 만나 러시아 훈련교관의 초빙과 영흥만 조차에 관해 협의했다. 그 결과로 정부간 정식 협약을 체결

하기 위해 주일 러시아 공사관의 스페이에르가 입국까지 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일본과 청국에 새어나갔고, 소위 제1차 한·러조약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1차 한·러밀약을 위해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던 김용원은 오히려 1885년 6월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된다. 누구에겐가 그 실패의 책임을 지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외교 고문 뮐렌도르프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김용원이 창업한 사진관은 이미 그 전에 사라졌지만, 그가 초빙해 왔던 일본인 사진기술자 혼다 슈노스케는 그 후 서울에 계속 남아 서울 수표교 부근에서 사진관을 개업했고, 후에는 남산 기슭 일본인 촌에서 다시 사진관을 열어 성공했다고 한다. 혼다 슈노스케는 일본 요코하마 출생으로 1883년 봄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정착했다.

만주에서 폭탄제조 책임자로 독립운동 참여

러시아와의 비밀 교섭에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그는 일본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김용원이 그 후 어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일제 시기 1924년 2월의 일본 경찰 비밀 기록을 보면, 그는 대한통의부 소속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쿄에 가서 테러를 실시할 비밀계획을 일본 경찰이 알아냈다는 보고서인데, 김용원은 이 계획에서 작탄대장, 또는 제탄대장이란 직위로 되어 있다. 폭탄을 만드는 책임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 대한통의부란 만주 지역에 이주했던 조선 동포들의 무장 독립단체로 1922년경 결성되었고, 그 대표는 김동삼이었다. 1924년초에 이 단체는 일본과 조선에서 테러 활동을 감행하려고 준비했는데, 도쿄에서 당시의 조선 유학생과 연결하여 활동하려던 계획이 일본 경찰에 사전에 발각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65세의 김용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그들이 일본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것인지, 그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화학을 공부해 화약 무기 등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가 그 단체의 제탄대장이란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듯하다. 하지만 65세라는 그의 당시 나이로 볼 때 그가 조선이나 일본에 직접 갔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가 그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한국 최초의 사진 기술자이면서 처음으로 화학을 공부하고, 양잠술도 배운 개화기의 무관 김용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개국 직후의 우리 역사가 너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